



# 유기축산물에 대한 유통업계의 반응

홍보팀

최근 웰빙(well-being) 바람과 함께 유기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유기농축산물에 대한 인증기준은 아직 미비한 실정이어서 특히 국내산 유기축산물은 찾아볼 수 없다.

농산물의 경우, 유기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로 인증 표시가 되어 있으며, 축산물은 유기축산물, 전환기유기축산물로 표시기준은 있으나 구체적인 인증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농축산물 유통업체들의 외국산 유기인증 받은 농축산물을 수입해와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H 유통업체에서 국제유기인증을 획득한 쇠고기가 수입돼 판매되고 있다.

아직 국내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은 “유기축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채 판매되고 있으나, 소위 ‘아는 층’에서는 ‘유기축산’이라는 명칭이 붙지는 않았어도, 인증받은 축산물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란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 검사하여 정부가 그 안전성을 인증해주는 제도다.

친환경농산물은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농약과 화학비료 및 사료첨가제등 화학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량만을 사용하여 생산한 농산물로 전환기간과 유기항성 농약 또는 화학비료 등의 사용량 등에 따라 유기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로 구분되어 표시된다(〈표 1〉 참조).

## 유기축산물에 대한 유통업계의 반응

<표 1>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 기준

기 준	
유기농산물	전환기간 이상을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 (전환기간: 다년생 작물은 3년, 그 외 작물은 2년)
전환기유기농산물	1년 이상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
무농약농산물	유기합성농약은 일체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가급적 권장 시비량의 1/4 이내 사용
저농약농산물	화학비료는 가급적 권장 시비량의 1/2 이내 사용 농약살포횟수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의 1/2 이하 - 사용시기는 안전사용기준 시기의 2배수 적용 제초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함 잔류농약: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1/2 이하

현재 이같은 4가지 기준의 친환경농산물 표시가 시행되고 있으며, 대형마트 등에서 이같은 표시가 적혀진 농산물을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다.

농축산물에 대한 유기인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농산물에 대한 기준이 이와 같은 반면 아직 축산물에 대한 유기축산물, 전환기유기축산물에 대한 인증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 유기축산물에 대한 인증기준 현주소

지난 6월 H 유통업체에서 국제유기농연맹(IFOAM)과 호주유기농협회(NASAD), 미국 농무부(USDA)의 유기농 인증을 받은 쇠고기가 수입, 매장에서 브랜드 제품으로 판매를 시작하면서 또다시 유기축산물에 대한 인증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H 유통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이 수입하는 쇠고기에 주어진 IFOAM의 유기인증은 Codex 기준보다 요건을 강화한 인증기준으로 유기축산물로 인정받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겠냐는 판단하에 수입을 추진했다고 한다.

특히 ‘청초우’라는 브랜드로 판매되고 있는 이 유기인증 획득 쇠고기는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함에 따라 생산이력과 추적이 가능하고, 사육에서부터 도축, 가공에 이르기까지 항생제나 성장호르몬, 유전자변형 사료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내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이 전무한 상태이다 보니 국제인증기준은 국내에서

는 통용될 수 없어 국제적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았어도 국내에서는 '유기축산물'의 혜택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H 유통업체에서 수입해 판매하고 있는 이 브랜드 제품은 국내에 수입되는 축산물 중 유기축산물로는 최초이자 유일무이한 셈이다.

현재 대형 유통업체로는 최초로 해외 유기인증 축산물을 수입해온 사례를 보고 수입이 활발해지지는 않을까 우려되는 반면에 관련 유통업체에서의 반응은 냉랭한 편이다.

어차피 해외에서 유기인증을 받고 들여와도 국내에서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지 못하니 유기축산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유기축산물은 의미가 없는 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 유기축산물 인증기준 마련의 시급성에 대해 국내 전환기유기축산이 시범사업 단계에 그치고 있으며, 정확한 자료의 불충분으로 인증기준 마련이 늦어지고 있다.

아직 시범단계에 그치고 있는 유기축산에 대해 먼저 인증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농관원 관계자는 현재 전환기유기축산물 인증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같은 유기축산물 인증과 관련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농장과 연계하여 빠르면 올 10월 중에 시범적으로 유기축산물이 출시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시범 유기축산물이 출시될 경우, 기간을 오래 두고 재검토의 과정을 거쳐 국내 실정에 적합한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유기축산물의 구비조건만이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상태다.

### 유기축산물에 대한 유통업체의 대응

국내 현실에 입각해 유통업체에서도 유기축산물 수입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놓치지 않고 있으나, 국내 유기인증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유기축산과 관련한 축산물의 수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현재 유통업체에서는 유기축산물 보다는 무항생제 축산물 브랜드를 발굴, 판매하는데 보다 중점하고 있다.

각각 유통업체마다 각 지역에서 생산자 브랜드로 판매되고 있는 브랜드 축산물을 각

## 유기축산물에 대한 유통업계의 반응

유통업체의 기준 등에 맞춰 생산을 지도한 후에 각각의 매장에서 안전축산물로 판매하고 있다.

S 유통업체 MD에 따르면 유기축산물등 친환경축산물 판매를 하고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친환경축산물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립이 없고, 사회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와 관련한 제품 출시의 계획이 없으며, 향후 이같은 문제들이 해결된 후에 재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친환경축산물중 수입의 경우, 외국기관의 인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국제인증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특히 사회적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기존 축산물과 차별화된 상품으로 특화된 축산물만을 판매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C 유통업체 축산팀 과장에 따르면 C업체는 글로벌 그룹으로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품질인증제도에 따라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자체 인증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같은 품질인증제도는 항생제 사용등 친환경농축산물로 인증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춘 축산물에 대해 "Quality Line" 상품으로 인증해주는 것.

돼지고기와 한우에 인증을 추진하고 있는 이 제도는 무항생제 또는 저항생제 사육과 SRM 사용의 금지 등의 조건이 포함돼 있다.

C 유통업체의 경우, 국내 3~5개 축산물 브랜드를 판매하고 있다.

국내 유기농업계의 선두주자인 P 업체의 유기농전문판매장 O 업체의 관계자에 따르면 O 업체에서도 친환경축산물보다는 친환경에 가까운 안전 축산물을 유통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 여건상 전환기유기나 유기인증 축산물이 전무한 상태여서 사람의 건강에 유해한 요소인 농약과 땅에 유해한 요소인 화학비료 등의 두가지를 철저히 배제한 친환경농산물을 유통하고 있다.

축산물의 경우는 항생제로부터 안전한 축산물을 유통하는 것이 사업의 방침이라고 전했다.

O 업체도 여타의 유통업체와 마찬가지로 생산자 중심의 브랜드를 발굴, 사양지도와 균일한 생산을 지도하면서 한 곳의 산지, 같은 사양과정, 철저한 항생제 및 성장촉



진제 사용 금지 등을 최우선 브랜드 목표로 하여 생산하고 있다.

○ 업체는 농산물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증을 받은 상품을 취급하지만 축산물은 인증기준이 전무하다 보니 현재 한우는 종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한우 DNA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식약청의 규격검사, 잔류항생제 검사 등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유통업체도 호주 태즈메이니아 섬에서 친환경 유기농기법으로 사육한 청정우와 유기농사료를 급여해 키운 돼지고기를 수입, 출시할 계획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수입할 예정인 이 축산물은 모두 생산이력정보시스템을 적용해 인터넷을 통해 생산국가, 사육농가, 사료, 백신투약 여부 등의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통업계의 이같은 반응과는 달리 축산 생산업계에서는 ' 과연 유기축산물 생산이 가능할 것인가?' 라는 최초의 명제부터 논의되고 있다.

특히 유기축산물 생산에 가장 관건이 되고 있는 유기사료의 공급에 있어 배합사료 원료의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실정에서 유기사료 생산이 가능할 것이냐의 문제와 GM 곡물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유기사료의 조건상에서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다.

또한 2005년부터 공장형 축분의 퇴비를 유기농축산물 생산에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유기농축법에 기초가 되는 순환형 농축산업의 유지가 가능할 것인가의 의문도 남아있다. ㉟